

제 10 화 보랭의 성모

글·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32년 11월,
벨기에 보랭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보랭은 벨기에 남부에 있는 가난하고
작은 규모의 지역이었어요.
당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으며
주민의 반 이상이 공산주의 사상에
현혹되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1932년 11월부터 1933년 1월까지 총 33회 발현하셨어요.
처음에 다섯명의 아이들에게 발현하셨는데,
발현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왕관을 쓴 아름다운
부인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라고
밝혔으며 이곳에 많은 사람이 순례를 오도록 성당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셨다고 해요.

발현하신 성모님은 여러차례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모성심을 표지로 보여주셨어요.

성모님은 서른세 번이나
발현하시면서도 말씀은 그다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항상 기도하여라"고 하시며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당부하셨어요.

발현 첫째 200만 순례자가 보랭을 찾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있던 이른바 "쉬는 교우"들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두드러지게 많았다고 해요.

교회는 성모님께 전구한 은혜로 일어난 여러 명의 치유 기적 등을
조사하였고, 1949년 7월 2일 발현의 진실성을 공적으로 인정하였어요.

보랭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서
주신 기적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이들을 다시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신 게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잠시 하느님을 잊고
있는 이들을 위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